

 기획재정부		<b>보도자료</b>	
<b>보도일시</b>	<b>2018.11.20.(수) 17:00</b>	<b>배포일시</b>	2018. 11. 20.(수) 15:00
<b>담당과장</b>	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천재호 (044-215-4530)	<b>담당자</b>	최진광 사무관 (044-215-4531) jk.choi.kmof@korea.kr
	정책조정국 혁신성장지원팀 남병훈 (044-215-4640)		김낙현 사무관 (044-215-4641) kimnh777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박동일 (044-203-4260)		김종연 사무관 (044-203-4259) kgy2000@korea.kr

## **‘제2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위원회’ 개최** **- 新소재 개발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 현장 방문-**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‘19.11.20(수) 14:00  
울촌화학\* 기술연구소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)에서  
‘제2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위원회’를 주재하였음

\* 필름·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, KIST·KAIST·고려대 등과 함께 산·학·연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5G 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되는 나노기반의 복합소재 원천기술을 개발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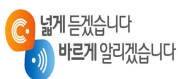
- 금번 2차 회의에서는 4개의 실제 협력사업에 대한 R&D 예산, 정책자금, 규제특례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사항을 승인하는 ‘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’을 포함한 총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함

- ❶ 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
- ❷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부장 기초·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

- ③ 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 R&D 강화방안
- ④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방안
- ⑤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
- ⑥ 전문위원회 구성현황

□ 한편, 회의종료 후 **홍남기 부총리**를 포함한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** 위원들은 **울촌화학의 배리어 필름**(2차전지 외부 포장 필름)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함

- ※ (붙임) 1. 부총리 모두 발언  
2. 각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



**기획재정부 대변인**  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

- 지금부터 **제2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**를 시작하겠습니다
- 회의 시작에 앞서, 바쁘시고 날씨도 찬데 이곳 안산까지 와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
  - 또한,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신 **이미혜 화학연구원장님**과 오늘 처음 참석하신 **최정표 KDI 원장님**, **강호갑 중견련 회장님**, **최성율 교수님**을 진심으로 환영함

**【회의장소 의미】**

- 지난 번 제1차 회의 이후 소재·부품의 수급애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「**소재·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**」현장을 방문한 바 있음
    - 금번 제2차 경쟁력위원회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·생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곳 일선 기업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
  -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**울촌화학**은 필름, 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으로,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· 한국과학기술원(KAIST)· 고려대 등과 함께 **산·학·연간 유기적 협업**을 통한 소재 영역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   - 이러한 산학연 협업\*을 통해 5G 데이터 전송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상용화까지 추진될 예정임
- \* 과기부 사업으로 '19추경부터 '22년까지 4년간 총38억원의 정부예산 지원 중

**【그동안의 여러가지 성과】**

- 정부는 8.5일,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대책」 발표 이후, **촉촉하게 관련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**
  -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인해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

❶(수입국 다변화)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미국, 중국, 유럽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진행중이며, 이외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전세계 38개소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입처 적극 발굴중

❷(국내생산 확대) 또한 공장 신·증축 등을 통한 불산액, 불화수소 가스 등 일부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도 지속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불산액 경우 생산물량이 수요기업 일부공정에 신규로 투입중

❸(해외기업의 국내투자) 그리고 미국의 장비분야 회사가 한국내 R&D센터 설치를 결정하고, 미국, 독일의 소재분야 회사들이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또한 가시화되는 상황

□ 또한, 2,732억원 규모의 추경사업 집행과 소재·부품·장비특별법 개정 등 **핵심품목의 항구적인 공급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중임**

☞ 이 기회를 맞아 2가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(1)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(GVC)을 현격히 약화시킬 것임. **원상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함**

(2) 지금 현안사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**핵심품목의 항구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**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함

### 【금일 회의의 중요성】

□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이 순간에도 고난도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과 노력이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

○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번 “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 협업”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함

-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은 ‘공급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, 수요기업에게는 공급품질 개선’이라는 상호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선전(善戰)을 가능케 하기 때문임

- 오늘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**반도체,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4개의 상생협력 사업들에 대한 최초의 승인** 및 이들에 대한 R&D 예산, 정책자금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계획을 논의하게됨
- 오늘 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4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기투자 **1,800억원**, 추가고용 **330명** 수준이 뒤따르고,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·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**최대 60% 수준**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기대됨

### 【회의안건 주요내용】

- 오늘 회의에는 3건의 심의안건과 3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됨
  - 심의안건으로 첫째 ❶ 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, 둘째 ❷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초·원천기술 조기확보방안, 셋째 ❸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IP- R&D 강화방안을 상정하고
  - 보고안건으로는 ❶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·중소 상생 모델 발굴방안, ❷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, 그리고 ❸ 경쟁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현황을 상정하겠음

### 심의 ① 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

- 첫번째 심의안건 「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」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4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방안과 함께 R&D, 정책자금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내용임
  - 4개 협력사업은
    - ①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하여 연 3천톤 생산하는 협력사업
    - ② 수입의존도가 90%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
    - ③ 자동차·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
    - ④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임

-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·원천기술을 기반으로, 수요 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·부품의 기술개발,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하여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임
- 이 4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해당품목들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, 고용,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효과를 기대함

심의 ②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초·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  
 ③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 R&D 강화방안

□ 두번째 안건은 「**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초·원천기술 조기확보 방안**」이며,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이 곳 현장과 관련된 안건임

- 정부는 핵심 기초·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, **산학연 융합 기반의 '4P' 전략**을 추진할 계획임

\* Portfolio, Pipeline, Process, Platform

- ①(Portfolio) 즉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 위주에서 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중심 기술개발까지 균형있게 지원하겠음,
- ②(Pipeline) 산업현장의 수요를 기초연구 현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「대학 기초연구-출연연 응용연구-기업 개발연구」라는 산학연간 유기적 연계를 각별히 강화하겠음
- ③(Process) 칸막이식 사업추진 체계를 벗어나 과기부 기초·원천 기술개발이 산업부와 중기부의 상용화 기술개발로 연결되는 부처간 R&D 이어달리기, 함께달리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
- ④(Platform) 과기원(4), 출연연(25)이 보유한 설비·데이터 등 연구 인프라를 기업과 적극 공유하는 국가 R&D자원 연계·활용망을 강화하는 것임

☞ 산학연간 유기적 협업으로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**울촌화학이 이러한 '4P 전략'의 대표적 사례**임  
 정부는 이러한 **4P 전략에 입각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**되도록 시행계획 마련, 관련 연구단 선정, 부처 연계 전용트랙 신설, 플랫폼 시범과제 선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방침

□ 세번째 안건은 「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-R&D 강화방안」임
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에서 '특허기반 연구개발(IP\*-R&D)'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,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집중 추진하

\* Intellectual Property

- 즉 정부 R&D 경우 소부장 R&D에 IP-R&D를 전면 확대(20년 3개부처 500개 내외 과제)하고, 민간 R&D 경우도 기업 성장단계 별 맞춤형 IP-R&D(특히 스타트업)를 지원했음,
  - 아울러 산학연관 IP-R&D 협력체계 구축, 전문기관 육성, 인력양성 등 IP-R&D 확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음

보고 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방안  
②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,  
③ 전문위원회 구성현황

- 마지막으로 3개의 보고안건은 목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 
첫번째 안건은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방안」으로 적절한 상생모델 발굴후 추후 실제 상생협력사업들이 경쟁력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

- 두번째 안건은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」,  
세번째 안건은 경쟁력위원회 안건을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해 줄 「전문위원회 구성현황」임

-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함.

## 붙임 2

## 각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안건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제1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	산업부	소재부품총괄과	박동일 (044-203-4260)	김종연 사무관 (044-203-4259)
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부장 기초·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	과기부	융합기술과	송완호 (044-202-4570)	윤태량 사무관 (044-202-4573)
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 R&D 강화방안	특허청	산업재산 창출전략팀	한덕원 (042-481-8254)	박기석 사무관 (042-481-8184)
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·중소 상생모델 발굴방안	중기부	상생협력정책과	장대교 (042-481-8957)	임호순 사무관 (042-481-8960)